

제15회 '도로의날'

도로교통인의 자긍심 제 15회 도로의 날! 1천여 회원 참석 서울교육문화회관서 성황리에 열려...



경부 고속도로 개통 15주년 기념일이자 도로교통인 모두의 축제 한마당인 '도로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월7일 1천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부포상을 비롯 협회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표창을 받은 개인 및 단체 (3개기관) 수상자 54명은 도로교통 건설현장의 설계·감리, 시공, 기술연구,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기술인들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기념식에 앞서 부대행사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주제: 미래교통환경 변화와 도로정책 방향)와 기술세미나(주제: 장수명·친환경 도로건설)는 행사장의 좌석이 부족할 만큼 많은 도로교통 기술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성공리에 마쳤다.



이효진 전 CBS 아나운서 진행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시하여,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최계식 한국건설안전기술원장, 박경부 한국방재협회장, 김병식 KINTEX 사장, 권병식 전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 역대 사장단 등 도로교통 관련단체장 및 산.학.연 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식전행사로는 도깨비시스템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20분간 있었다.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지난 36년전 도로교통인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흘린 고귀한 땀이라 말한뒤 개통 당시의 감동과 자긍심을 초석으로 삼아 국가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손 협회장은 또, 3,078km의 고속도로와 전국토에 10만 km의 광대한 도로망이 구축돼, 도로가 국



제15회 '도로의날'



내 수송물량의 90%를 담당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민이 요구하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한 친환경 첨단도로의 패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개발에 더욱 힘쓰고 기업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직한 풍토의 '상생협력문화'를 조기에 정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주)천일기술단 김여일 부사장 외 29명에 대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과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의 '도로인상' 시상이 거행되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가 그동안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상징해 왔으며, 경제적 가치와 기능성 측면의 중요도는 아무도 부정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장관은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 더욱 광범위 해지고 있다면서 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 도모, 남북도로연결사업,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사업 등에 모든 도로교통인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